

항공기 시뮬레이터 국내 개발 성공

- 경유종합기술(주) / 朴聖烈·朴璿培 父子



朴聖烈
경유종합기술 대표



朴璿培
인하大 교수

항공기 시뮬레이터의 국내개발에 성공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아직은 초보적인 기술수준의 시뮬레이터지만 상황과 시간에 따른 오차가 2%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개발에 성공한 경유종합기술(주)은 이미 지난 91년 8월 개발시제품을 인하대에 비치했으며, 현재의 항공기 시뮬레이터는 지난해말 개발에 성공하여 금년 2월 18일에 조선대에 납품하였다.

민·軍 공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시뮬레이터 분야는 대표적인 共用기술사례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항공기 시뮬레이터의 개발 성공에 이어 현재 90%의 개발 진척도를 보이며 조만간 개발시제품을 내놓을 자동차 시뮬레이터도 커다란 화제를 몰고올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이번 개발을 수행한 경유종합기술 朴聖烈 대표이사과 인하大 朴璿培 교수가父子之間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으며, 연구원도 몇명밖에 안되는 영세 중소기업에서 성공한 개발로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발의 주역인 朴璿培 교수는 89년 4월 개발에 착수하여 3년여만에 성공하였음을 밝히면서, 유압시스템 장치 개발 등 2년의 기간과 15억원정도가 추가 투자된다면 6自由度 시뮬레이터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朴聖烈 대표이사는 현재의 연구개발 여건에 대해 서류상 검토를 통한 객관화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관계없는 종업원數나 자본금등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朴 대표는 사회일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고 반문하면서, 계약이 되어도 자료(계획서 등) 제출 등 결국 들러리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父子간의 노력이 産·學연구의 개가로 이어진 이번 개발과 관련, 朴대표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장기비전의 제시와 함께 교통질서만 해준다면, 각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공의 열매를 잉태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홍당무를 잔뜩 앞에 두고 말(馬)에게 달리라고 하면 전력을 다할 것이란 말을 덧붙이면서... (泰)

첨단 항공무기 개발에 대비한 요소기술 기반 확대와 항공기 개발의 산·학·연·관·군의 협동체제 도모를 촉진하기 위한 제1회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이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國科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초청 및 특별강연과 함께 6개 분과로 나뉘어 39편의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다 (본문 계속)



항공우주 추진체제 국가적 차원 조정 시급

- 제1회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

이 날 심포지엄에서 金學玉 國科연 所長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도 우리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아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첨단 항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력 건설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金學玉 소장은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항공무기 체계개발에 대비한 요소기술 기반구축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산 ·학·연·관·군 각계 인사 7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洪在鶴 航空우주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2000년대 항공우주 기술입국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는 항공우주분야의 종합적인 長期계획이 없고, 각 분야의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여, 자원의 효율적 투입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항공우주분야의 추진체제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대한항공, F-5 전투기 개조사업 참여

- 캐나다 브리스톨사와 제휴 ... 삼성항공과 치열한 경쟁 예상



대한항공 이 캐나다 브리스톨사와 제휴, F-5전투기 국공동개량사업에 참여한다.

이에따라 지난 4월 F-5 전투기 제작사인 美 노드롭사와 F-5전투기 공동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삼성항공과 대한항공은 전세계 28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2천4백여대의 F-5 전투기 개조시장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F-5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은 모델과 개조정도에 따라 세계시장규모는 최소 2조5천억원에서 최대 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과학기술력 고려없는 所要제기 止揚되어야...

- 국방부와 KIDA개최, 국방정책토론회에서

「국방 과학기술 발전과제와 進路」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가 5월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렸다

黃東準 박사(KIDA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방향(安秉夏, p.p 14~17 참조)」 및 「방위산업의 새 進路(閔晟基, p.p 18~20 참조)」등 2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順으로 이어졌다
(본문 계속)



우리 軍의 국방과학기술 현대화에 대한 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수립의 활성화를 위한 이날 토론회에서 鄭仁均 KIDA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이 자주국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역설하면서, 이제 국방과학기술이 어떻게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또 국가과학기술을 어떻게 국방과학기술에 接木시킬 것인가를 강구해야 할 때임을 모색하는 것이 이날 토론의 주요의제이자 향후 주요과제임을 밝혔다.

이어 安秉夏 박사(KIDA 무기체계연구센터 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력의 고려없는 성능위주의 무기체계 소요제기는 止揚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군사력 건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安秉夏 박사는 국내개발 대상 국방핵심요소기술을 예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약 10조원의 누적투자와 2만명의 연구인력이 소요되며, 개발시기도 15년이 경과되나 현실은 이에 크게 미흡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이의 해결책으로 범정부차원에서의 분담체제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종합토론중 일부를 발표順으로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진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진정한 防産 自主力은 국내기술력에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다한다」는 개념아래 방산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인정하는 기반위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민간기업이 1차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이나 부처가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1억불에 구입하는 무기를 국내업체가 개발했다면 그 값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장수영 과거처 기획관리실장

국방과학기술의 육성·발전이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基底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으로는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유인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市場만 보이면 업체는 노력할 것입니다. 軍이 필요기간, 설정물량등 최소한의 소요만 제기하면 업체는 해냅니다.

국방부도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책임지는(Total Manager) 체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 광 영 한국일보 기획위원

公開가 원칙이 되어야 협력이 될수 있습니다. 保安체제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한 국가적 기밀이 아닌 이상 우리 기술로 하는 품목별 개발등은 개방(open)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할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이제는 독자적 추진 보다는 개방을 통해서, 또 관리위주로 전환하며 민간을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 김 영 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장

국토방위에 도움을 주는 시간개념에 따른 시나리오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국가안보회의에 국방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방위에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국가기술안보회의」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동 신 합참 전력기획부장

北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데, 北 주변국 위협으로 전력방향을 급격히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방비의 현상유지도 어려운데 장차를 대비한 신규투자는 현실적으로 不可합니다.

예산과 시기, 요구성능의 3大 관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요개발기획단을 非常設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CBRIS개념 도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체의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 상 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지도자가 결정하는 역사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방과학기술도 정치·경제·사회의 총체적 시각과 개념에서 보아야 합니다. 현대는 정보화사회입니다. 국방예산에도 정보화추진을 위한 예산배정이 고려되길 바라며, 軍의 편제도 국방과학기술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泰)

종합군수지원 (ILS) 관리자 세미나 열려...

종합 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ILS 관리자 세미나가 5월 25일 국방부 제2회의실에서 産·學·軍 각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재열 국방부 군수국장은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전투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종합군수지원의 체계적인 적용만이 軍의 과학화와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첩경(捷徑)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석용문 대령(국방부 군수국)은 국방부가 종합군수지원 관리정보체계(LAMIS) 사업을 1995년도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무기체계획득 관리업무에 관계하는 관련인사들이 주장비 선호의식에서 탈피하여, 종합군수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되었을때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군수지원요소를 개발하고, 운용시 유지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종합관리활동으로, 우리 軍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실제적으로 무기체계 획득업무에 적용된 것은 K-1 전차사업이 처음이며, 현재는 모든 무기체계의 획득 관리에 적용되고 있다.

